

부모 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Ⅱ): 일상가사를 중심으로*

Die Studie von Rollenauffassungen bei koreanischen Eltern während
des Übergangs zur Elternschaft(Ⅱ) : Haushaltsaufteilung und Zufriedenheit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양 명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ersity
Assistant Prof.: Yang Myung Sook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요약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

Den Ausgangspunkt für die Untersuchungen der vorliegenden Studie(II) bildeten die Auswirkungen des Rollenwandels auf das elterliche Verhalten und die Beziehung der Eltern zueinander. Im Rahmen dieser Studie beschränkt sich die Untersuchung auf eine bestimmte Phase des Familienlebens, nämlich den Übergang zur Elternschaft und für diesen Bereich wurden Angaben zu Arbeiten im Haushalt mit Zufriedenheit.

Beurteilt wurden Übergangseffekte im Vergleich von Veränderungen bei Erst- und Zweiteltern, die im Zusammenhang mit dem Baby aufgetreten sind. Dieses Vorgehen basierte auf der Annahme, daß bei Ersteltern stärkere Effekte auftreten als bei Zweiteltern.

Die Ergebnisse basieren auf 130 südkoreanischen Erst-bzw. Zweiteltern die während der Schwangerschaft(ca. 6 Monat) erstmals befragt wurden und auf verbliebenen 89 Elternpaaren, die sich an einer zweiten Befragung drei Monate nach der Geburt des Babys beteiligten. Die Ergebnisse zur Aufteilung von Haushaltsarbeiten haben für die Gesamtstichprobe gezeigt, daß in der Zeit vor und nach der Geburt des Kindes

* 본 논문은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임

die Arbeiten im Haushalt meistens von den Müttern übernommen wurden. Beim Vergleich von Erst- und Zweiteltern wurden Unterschiede in der Aufteilung der Arbeiten im Haushalt gefunden. Diese Unterschiede bestehen insbesondere darin, daß die Zweitmütter(vor der Geburt des zweiten Kindes) noch mehr Haushaltsarbeiten als die Erstmütter(vor der Geburt des ersten Kindes) übernehmen. Bezüglich der Zufriedenheit mit der Aufteilung der Arbeiten im Haushalt wurden bei den Vätern Unterschiede drei Monate nach der Geburt des Kindes gefunden. Nach der Geburt des Kindes sind die meisten Zweitväter zufriedener mit ihrer Rolle im Haushalt als die Erstväter nach der Geburt ihres Kindes.

I. 서론

본 연구는 젊은 세대 가족의 특성에 역점을 두고, 양명숙(1993)의 부모전환기에서의 부모 역할관 연구(1)에 이어 젊은 부부들의 역할분담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일상가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에서 일어나는 전환기의 영향과 출산력의 차이에 따른 부부의 일상가사 분담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이는 첫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부부에게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보다 전환기에 따른 변화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집과정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표집수는 통계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가사의 분담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변화를 알아보고, 아울러 출산력의 차이가 일상가사에 미치는 영향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차이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

부모전환기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오랜 유래를 가지고 그 문화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특히 가족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환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부 및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어 장애의 요인이 되는지, 촉진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Golger-Tippelt, 1985, 1988; Michaels & Goldberg, 1988), Hill(1949)과 J.e Masters(1957)는 이 부모전환기를 "위기"에 의한 발전의 관점으로 보았고, Rossi(1968)는 "중립적" 관점에서 부모전환기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역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할'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학적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Linton(1936)에 의해 문화 인류학측면에서 대두되었다. Linton(1945)은 '역할'이란 어떤 특정한 위치와 관련된 문화적인 총체라고 하였고, 이러한 역할 개념에는 관념, 가치관 그리고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Simmel(1908)은 역할 개념을 사회로부터 사회적 위치가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연구에 대한 역할 개념은 Linton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할 개념은 크게 '구조-기능적 역할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적 역할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기능적 역할이론은 사회학측면의 가족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주요개념으로는 사회체계, 기능적 문

제,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화과정이 있다. 역할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가족내에서 성(性)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성에 대한 역할 분담은 Parsons과 Bales(1955)에 의하여 구분되었는데, 남자의 역할은 도구적인 역할로, 여성의 역할은 표현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이에 부모전환기에 대한 구조-기능적 역할 분석은 첫 자녀의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강한 역할 분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족내에서의 구조적 위치 내지는 역할, 그리고 그들에 의해 정해진 기능에 대한 설명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파트너 사이의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부모 전환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의 극복은 무엇보다도 역할수행 태도에 대한 부부의 당연한 생리적 문제와 사회적 기대를 부부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가에 있다. 즉 부모로서의 과업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찾는 데 있다(Gloger-Tippelt, 1988, S. 49).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이 자녀의 출산이후에 출산전 보다 더 전통적인 성역할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Gloger-Tippelt, ebd.).

상징적-상호작용적 역할 이론은 “Chicago School”을 중심으로 주로 사회심리학 방향에서 전개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로 Piaget, James, Dewey, Cooley, Thomas, 그리고 Mead, G.H. 가 있다(Rose, 1973, S. 267; Steinert, 1973, S. 14; Stryker, 1976, S. 267 ff).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행위는 상징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인간이란 “...상징적 연결자이며, 유일하게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는 생명체이며, 또한 사회집단 속에서 상징적 과정에 종속되고 관찰되는 유일한 개체이다”(Lindesmith & Strauss, 1974, S. 28). 따라서 인간은 “사물”을 기본적인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해석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다루게 된다(Blumer, 1973, S. 85 ff).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됨” 또는 “자녀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들은 상징

적인 것을 전달하는데, 이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된다는 일반적인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의 과정은 다른 타인들에 의하여 그 위치에 상응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기대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역할”이다. 이 역할은 가족내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이거나, 자녀의 역할, 또는 남편의 역할이거나 아내의 역할 등으로 정해진다. 이와같이 상징적 상호작용적 역할 개념에 있어서, 역할자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나 역할 정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태도는 상황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의미인 해석을 통하여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적 상호교환은 가족 구성원의 어느 누구나 다른 위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적 역할 개념은 상황과 관련되어 융통성 있는 구조-기능적 역할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됨”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적인 관점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의 역할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로 변화되는 역할 정제간의 과정과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예를 들어 부인의 직장생활 등) 남편이 부득이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하거나, 또는 부모의 역할을 상호교환해야 되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Gloger-Tippelt, 1988, S. 50 ff).

따라서 구조 기능적인 역할관은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는 수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여자는 표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나타내고, 상징적 상호작용적 역할관은 구조 기능적 역할관보다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을 교환할 수 있는 진보적인 역할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적, 진보적 역할관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의 임신기와 자녀의 출생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일상 가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들은 산업화 및 현대화와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에 의한 전통적인 역할개념이 현대의 가정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류시중, 박경구, 1982; 임정빈, 정혜정, 1986; 최신타, 1973; 최재석, 1971). 한국 부부들의 역할에 대한 이효재(1959)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서로 만족하고 있으며, 갈등의 요인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이전에 비해 많아져가고 있으나, 가사의 분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경향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가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으며(류시중, 1973; 이석진, 1971; 최신타, 1973; 최재석, 1971). 80년대에는 부부의 역할분담중에서도 특히 취업주부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옥선화, 1980, 1982; 이미숙, 1980; 이정연, 1982, 1983; 임정빈, 정혜정, 1986).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은숙, 김명자, 1993; 김영희, Goldsmith, 1992; 이기영, 구혜령, 1992; 장윤옥, 1992).

류시중(1973)의 한국의 도시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가사분담은 전통적인 성역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신타(1973)의 연구에 의하면 핵가족에게는 확대가족에게서 보다 진보적인 역할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가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선화(1982)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사들 예를 들면 음식만들기, 설거지 하기, 청소하기 등은 부인들에 의하여 80% 이상이 수행되고 있으며, 작은 집안 수리는 남편들에 의하여 60% 정도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연구에 대한 박인경, 이정우(1986)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주부의 전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 만족도는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취업주부의 과중한 이중역할과 관련된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고은숙, 김명자의 연구(1993)에 의하면 취업주부들은 스트레스의 요인중에 가사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과중한 가사노동과 남편의 가사협조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부부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현대 가족의 역할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역할 갈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통한 부모전환기에서의 부부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명숙(1993)의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1)에 이어 역할관의 변화중에 특히 일상가사의 분담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차이 및 임신기와 출산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의 20세 이상에서 38세 미만의 첫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단기 종단적 연구로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 3개월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표집되었다. 1차 조사는 임신중인 부부(약 임신 5, 6개월을 중심으로)를 대상으로 1988년 11월에서 1989년 1월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 군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찾은 임신부들 면접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쌍의 부부를 질문지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자녀가 출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1차조사에 응답한 부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포한 후에 우편내지는 인편으로 수거하였다. 1차 조사에 분석된 자료는 총 130쌍으로,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수(4 쌍)가 통계학상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2차 조사는 이들 중에 89쌍만이 통계 분석이 가능하였다.

3.2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방법

측정도구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하이네 대학교 발달 및 가족심리학 연구소에서 국제 비교연

구의 일환으로 연구자와 공동제작한 질문지 중에 가사분담에 대한 설문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역	제 1차 조사	제 2차 조사
가사분담	누가 무엇을 하는가?	누가 무엇을 하는가?
분담 만족도	가사 분담에 만족하는가?	가사 분담에 만족하는가?

가사분담일에 대한 질문지는 11개 항목으로 음식 만들기, 시장 보기, 청소 하기, 빨래 하기, 다림질 하기, 집안 수리하기, 식사후 정리 도와 주기, 설거지 하기, 방 치우기, 시청이나 관청 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 금전관리(가계 예산, 가계부 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간의 문화 비교를 위하여 한국과 독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상가사일로 한정하였다. 11개 문항중에 “집안 수리하기”와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처리하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전관리”는 부부 공동의 일로 간주되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일로 간주된 8개 문항에 대한 반분법(Split-half Method)에 의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시기	표본수	가사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1	130	0.843	0.780	0.713	0.790
2	89	0.763	0.720	0.792	0.894

대답은 “항상 내가”, “대부분 내가”, “둘이 거의 비슷”, “드물게 내가”, “나는 전혀 안함”, “기타”로 되어 있다. 이에 항상 어머니가 행할 경우는 5점, 대부분 어머니는 4점, 둘이 거의 비슷은 3점, 가끔 아버지는 2점, 항상 아버지에 해당할 경우는 1점을 주었으며, 기타는 Missing으로 처리하였다.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이대로 만족스럽다”, “배우자(남편/아내)가 좀더 자주 해야 한다”, “배우자(남편/아내)가 나에게 더 양보해야 한다”로 대답되며, 어머

니(아내)가 더 자주 해야 된다는 해당할 때는 3점, 이대로 만족스럽다는 2점, 아버지(남편)가 더 해야 된다는 해당할 때는 1점이 주어 졌다. 자료 처리는 SPSS/PC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 평균치, 중간치, Chi-square Test, t-Test, Mann-Whitney-U-Test 등이다.

IV.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4.1.1 제 1차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는 총 130쌍 이었으며, 이중에 76 (58.5%) 쌍은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였으며, 54 (41.5%)쌍은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부부였다. 이중에 2차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89쌍이었으며 47쌍(52.8%)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였으며, 42쌍(47.2%)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였다. 이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1차 조사대상자 130쌍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조사당시 27.4세였으며(최소 = 21.0세, 최고 = 35.0세),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30.1세(최소 = 25.0세, 최고 = 43.0세)로 자세한 나이분포는 표.1에서 볼 수 있다.

〈표 1〉 조사당시의 나이 분포도

(N=130)

나이	어머니 %	아버지 %
25세 미만	13.0	0
25세 이상-30세 미만	66.1	46.9
30세 이상	20.9	53.1
계	100.0	100.0

〈표 2〉에서는 제 1차 조사당시의 임신개월을 나타내고 있다. 130명중 13명의 임신부에서는 임신개월이 누락되어 117명 만이 분석되었으며, 이들중 평균 임신개월은 5.4 개월이었으며, 75%이상이 5, 6, 7개월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부모들의 종교 분포는 〈표

〈표 2〉 조사당시의 임신개월

(N=130)

개월	%
2	1.7
3	8.5
4	9.4
5	36.8
6	21.4
7	14.5
8	6.8
9	.9
계	100.0

〈표 3〉 종교 분포

(N=130)

	어머니 %	아버지 %
종교없음	37.7	48.5
기독교	25.4	20.0
천주교	11.5	7.7
불교	23.1	21.5
기타 종교	1.5	0.8
무응답	0.8	1.5
계	100.0	100.0

〈표 4〉 교육수준 분포도

(N=130)

	어머니 %	아버지 %
중졸 이하	5.4	0.8
고졸	36.8	21.5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3.8	10.0
대졸	40.8	51.5
대학원졸 이상	3.1	16.2
계	100.0	100.0

3)과 같다.

교육수준은 표.4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이 어머니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

졸이상이 어머니 집단에서는 43.9%, 아버지 집단에서는 67.7%로 나타났다. 130명의 어머니들중에 25.4%가 직업을 가졌고, 74.6%는 직업이 없었다. 아버지들 중에서는 96.8%는 직업이 있었으며, 2.3%는 직업이 없었다. 직업별에 따른 분포도는 표.5와 같다.

〈표 5〉 직업별 분포도

(N=130)

직업분류	어머니 %	아버지 %
전문 관리직	1.5	10.0
전문직	10.8	18.5
사무직	8.5	42.3
판매직	2.3	16.2
생산직	0.0	3.8
무응답	76.8	9.2
계	100.0	100.0

〈표 6〉 지역 분포도 (어머니 응답 기준)

지역	%
파주	0.8
진해	3.8
경주	2.3
인천	10.8
경기도 지역	6.9
울주	0.8
마산	0.8
부산	8.5
서울	56.9
창원	4.6
울산	2.3
수원	0.8
무응답	0.8
계	100.0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소수의 응답자들의 월소득이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중간치를 중심으로 월소득을 살펴보면, 어머니들

의 응답으로는 600, 000원, 아버지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는 675000원의 수준이므로, 조사당시의 1988년도 도시근로자 가계 월 수입인 657, 215원(경제기획원 자료)과 비교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월 수입 수준은 대체로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경기도 지역은 화성군, 성남시, 시영, 광명시, 부천, 과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2 2차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

제 1차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130쌍 중에 89쌍만이 2차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들중에 제 1차조사때 76쌍의 첫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중에 47쌍이, 54쌍의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중에 42쌍이 제 2차 조사까지 설문조사되었다. 이는 첫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중에는 38%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중에서 22%가 누락되었으며, 이 차이는 5%수준에서 유효하였다($\text{Chi-square} = 3.7; df = 1; p = .05$). 제 2차조사때의 어머니들의 평균나이는 27.6세($s = 2.6$, Median = 27.0세), 아버지들의 나이는 30.4세($s = 2.9$, Median = 30.0 세)이며, 나이별로의 분포도는 표.7과 같다.

〈표 7〉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나이 분포도 (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 = 89)

나이	어머니 %	아버지 %
25세 미만	8.9	0.0
25세 이상-30세 미만	68.6	40.4
30세 이상	22.1	59.4
계	100.0	100.0

제1차 조사때만 응답한 부모쌍(41쌍)들의 나이분포와 이들중에 제 2차조사까지 응답한 부모(89쌍)들의 나이 분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임신개월 분포

〈표 8〉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임신 개월 분포 (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 = 89)

개월	%
2	2.5
3	7.6
4	8.9
5	30.4
6	25.3
7	19.0
8	6.3
계	100.0

는 표.8에서 볼 수 있다. 평균은 5.5개월이며, 75%가 임신 5, 6, 7개월이며, 10쌍(11%)은 임신개월이 누락되어있다. 2차조사때까지 응답한 부모집단과 1차 조사때만 응답한 부모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종교분포도 (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 = 89)

	어머니 %	아버지 %
무종교	38.2	50.6
기독교	28.1	21.3
천주교	13.5	11.2
불교	19.1	15.7
기타 종교	1.1	
무응답		1.1
계	100.0	100.0

종교분포도를 표.9에서 살펴보면 통계학적으로 1차조사때만 응답한 부모집단과 2차조사때 까지 응답한 부모집단과의 차이는 아버지 집단에서 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단 기타종교와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Chi-square-Test : 어머니 : $\text{Chi-square} = 3.7, df = 3, p = 0.29$. 아버지 : $\text{Chi-square} = 9.6, df = 3, p = 0.02$). 아버지 집단의 차이는 천주교집단의 아버지들은 10명 중에 10명 전원이 응답한 것에 비해, 불교 집단의 아버지들은 28명 중에 14명만이 응답한 것에

〈표 10〉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분포도(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89)

	어머니 %	아버지 %
중졸 이하	3.4	0.0
고졸	37.1	23.6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4.6	10.1
대졸	41.6	50.6
대학원졸	3.4	15.7
계	100.0	100.0

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10은 교육수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 1차조사때만 응답한 부모집단과 제 2차조사때 까지 응답된 부모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11은 직업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직업 분포도
(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89)

직업 분류	어머니 %	아버지 %
관리전문직	1.1	9.0
전문직	11.2	22.5
사무직	9.0	44.9
판매직	1.1	13.5
생산직		2.2
무응답	77.5	7.9
계	89 100.0	89 100.0

89명의 2차 조사 응답자중에 1차조사때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들은 24(27.0%)명이며, 아버지들 중에서는 87(97.8%)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에 있어서, 제 2차조사때까지 응답한 집단과 1차조사때만 응답한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집단에서의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집단의 직업참여도가 낮아서, 아버지집단과 어머니집단의 차이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2차 조사 대상자들의 월소득을 중간치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집단에서는 600, 000원이며, 아버지집단

〈표 12〉 2차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지역분포도
(제 1차 조사 자료 중심)

(N=89)

지역	%
진해	1.1
경주	3.4
인천	11.2
경기도 지역	9.0
울주	1.1
부산	5.6
서울	58.4
창원	5.6
울산	2.2
수원	1.1
무응답	1.1
계	100.0

에서는 700, 000원으로, Mann-Whitney-U Test 결과 1차 조사 응답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분포도는 표.12에서 볼 수 있다. 표.13에서는 제 1차조사때만 응답한 집단과 제 2차조사때까지 응답한 집단의 지역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제 2차 조사때와 1차 조사때의 지역분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제 1차조사때 참여한 집단과 2차 조사에 참여한
집단의 지역분포도(제 1차조사 자료 중심)

지역	2차 조사 참여 집단	제1차 조사만 참여한 집단
인천	10	4
경기도 지역	8	1
부산	5	6
서울	52	22
기타지역	14	8
계	89	31

4.2 일상가사

4.2.1 일상가사 분담에 대한 분포도

일상의 가사를 보통 누가 맡아서 하는가에 대한

전체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표.14에서와 같다. 먼저 임신기인 1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적인 일로 간주되는 일상 가사는 거의 다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균이 4점(대부분 어머니)에서 5점(항상 어머니)사이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집안 수리하기는 대부분 아버지들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평점 2점(대부분 아버지)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는 평점 3점으로 둘이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거나, 아버지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적인 가사 중에서도 음식만들기, 시장보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다림질 하기, 식사후 정리하기, 설겅이 하기, 방치우기, 그리고 금전 관리(가계예산, 가계부 쓰기)등의 일들은 주로 어머니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수리하기는 대부분이 아버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의 응답에 있어서 시장보기와 집안수리하기, 방치우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에서는 부부간에 1%의 수준에서, 그리고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에서는 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장보기에 대하여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응답한 것보다 더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집안수리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아버지 자신들이 행한다는 것보다 더 많이 아버지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와 방 치우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에서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응답한 것보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출산후인 제 2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 1차 시기때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간의 응답의 차이는 빨래 하기, 다림질 하기,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 방치우기, 금전관리(가계예산, 가계부쓰기) 등에서 5%의 수준으로, 그리고 집안수리하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에서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빨래하기, 다림질 하기, 집안 정리하기, 금전관리(가계부쓰기) 등은 실제로 어머니 자신들이 수행한다는 것보

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더 수행한다고 보고하였고,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 방치우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 등은 어머니 자신들이 아버지들이 응답한 것보다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임신기인 제 1차 시기와 자녀의 출생 후 3개월이 지난 2차 시기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머니집단에서는 음식만들기와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에서 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자녀의 출산후에 어머니들은 임신기보다 음식만들기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는 출산후에 어머니들이 임신기보다 덜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집단을 살펴보면 시장보기에서 5%의 수준에서 그리고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에서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장보기는 아버지들이 볼 때 자녀의 출산후에 어머니들이 임신기보다 덜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는 임신기때 보다 자녀의 출산후에 현저하게 아버지들이 더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임신기보다는 유의하게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둘이 거의 비슷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임신기나 출산후에도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와 방치우기,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처리하기에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평가하는 역할수행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자녀의 출산후에는 시장보기나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4.2.2 가사에 대한 만족 분포도

일상가사의 분담에 대한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표.15에서와 같다. 임신기인 제 1차 시기에서의 일상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금전관리(가계 예산, 가계부 쓰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관리에 있어서는 부부가 서로 만

〈표 14〉 가사에 대한 분포도

문항	시기	어머니			아버지			t1	t2	t3	t4
		N	M	s	N	M	s				
1. 음식 만들기	T1	128	4.5	0.8	127	4.6	0.7			*	
	T2	85	4.7	0.6	85	4.7	0.5				
2. 시장 보기	T1	125	4.3	0.9	128	4.6	0.7	**			
	T2	87	4.3	0.9	85	4.4	0.7				
3. 청소하기	T1	125	4.2	0.9	129	4.1	0.7				
	T2	86	4.2	0.8	86	4.2	0.6				
4. 빨래하기	T1	126	4.4	0.9	129	4.5	0.7				
	T2	86	4.5	0.7	86	4.6	0.5		*		
5. 다림질 하기	T1	126	4.4	0.9	128	4.4	0.8				
	T2	87	4.3	1.0	86	4.5	0.9		*		
6. 집안 수리하기	T1	123	2.0	1.0	128	2.3	0.8	**			
	T2	86	2.0	1.2	87	2.3	1.2		**		
7.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	T1	129	4.3	0.7	129	4.2	0.8	*			
	T2	87	4.3	0.7	86	4.1	0.7		*		
8. 실것이 하기	T1	129	4.6	0.6	129	4.6	0.6				
	T2	88	4.6	0.6	86	4.5	0.5				
9. 방 치우기	T1	127	4.2	0.8	129	3.8	0.9	**			
	T2	86	4.1	0.8	86	4.0	0.7				
10. 시청이나 관청 서류(각종고지서 등) 처리하기	T1	126	3.5	1.3	129	3.2	1.4	**		*	
	T2	88	3.2	1.5	87	2.3	1.2		**		
11. 금전관리(가계 예산,가계부쓰기)	T1	126	4.3	0.9	129	4.3	1.0				
	T2	87	4.3	1.0	87	4.4	1.0		*		

* = $p < .05$ ** = $p < 0.1$

(N)=표본수, (M)=평균, (s)=표준편차, (T1)=제1차 조사, (T2)=제2차 조사, 항상 어머니=5, 대부분 어머니=4, 둘이 거의 비슷=3, 대부분 아버지=2, 항상아버지=1 기타, 무응답=Missing.

t1= 제1차 조사에서의 어머니집단과 아버지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t2= 제2차 조사에서의 어머니집단과 아버지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t3=어머니집단에서의 제1차와 제2차 조사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t4=아버지집단에서의 제1차와 제2차 조사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족스러워하고 있지만, 다른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일상가사일에 좀더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출산 후인 제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신기와 출산을 통한 일

상가사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어머니집단과 아버지집단들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가사에 대한 만족 분포도

분항	시기	어머니			아버지			t1	t2	t3	t4
		N	M	s	N	M	s				
1. 음식 만들기	T1	128	1.8	0.4	130	2.0	0.3	**			
	T2	89	1.8	0.4	88	2.0	0.3		**		
2. 시장 보기	T1	128	1.8	0.4	130	2.0	0.3	**			
	T2	89	1.8	0.4	88	2.0	0.3		**		
3. 청소하기	T1	128	1.6	0.5	130	2.0	0.4	**			
	T2	89	1.5	0.5	88	2.0	0.4		**		
4. 빨래하기	T1	128	1.8	0.4	129	2.0	0.3	**			
	T2	89	1.7	0.5	88	2.0	0.3		**		
5. 다림질 하기	T1	128	1.9	0.4	129	2.0	0.4	**			
	T2	89	1.8	0.4	88	2.1	0.3		**		
6. 집안 수리하기	T1	128	1.6	0.5	130	1.9	0.4	**			
	T2	89	1.7	0.5	88	1.9	0.3		**		
7. 식사후 정리 도와주기	T1	128	1.8	0.4	130	2.0	0.3	**			
	T2	89	1.6	0.5	88	2.0	0.3		**		
8. 설거지 하기	T1	128	1.8	0.4	130	2.0	0.3	**			
	T2	89	1.7	0.5	88	2.0	0.3		**		
9. 방 치우기	T1	128	1.5	0.5	130	2.0	0.4	**			
	T2	89	1.6	0.5	88	2.0	0.4		**		
10.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	T1	129	1.8	0.4	130	2.0	0.4	**			
	T2	89	1.7	0.5	88	2.0	0.3		**		
11. 금전관리(가계예산, 가계부 쓰기)	T1	129	2.0	0.3	128	2.1	0.4				
	T2	89	2.0	0.4	88	2.0	0.3				

** = $p < .01$

(N)=표본수, (M)=평균, (s)=표준편차, (T1)=제1차 조사, (T2)=제2차 조사, 아버지(남편)가 좀 더 자주해야한다=1, 이대로 만족스럽다=2, 어머니(아내)가 더 자주해야한다=3.

t1=제1차 조사에서의 어머니집단과 아버지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t2=제2차 조사에서의 어머니집단과 아버지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t3=어머니집단에서의 제1차와 제2차 조사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t4=아버지집단에서의 제1차와 제2차 조사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4.2.3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가사 분담에 대한 비교

자녀수에 따른 부모들의 가사 분담에 대한 차이를 표.16와 표.17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신기인 제 1차 시기의 가사 분담에 대한 어머니집단간의 차

이 즉 첫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집단과 둘째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집단간의 차이는 5%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둘째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가 첫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들 보다 자녀의 임신기에는 일상가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자녀의 출산후에는 유의하지 않았

〈표 16〉 첫째 부모와 둘째 부모의 가사 분담

변 인		첫째 부모			둘째 부모		
		N	M	s	N	M	s
제 1차 시기(임신기)							
가사일 분담	어머니	76	4.27	0.60	54	4.49	0.47
	아버지	74	4.32	0.48	54	4.32	0.64
가사일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75	1.76	0.27	54	1.67	0.28
	아버지	75	1.96	0.20	54	2.01	0.27
제 2차 시기(출생 후 3개월)							
가사일 분담	어머니	46	4.30	0.55	42	4.46	0.50
	아버지	45	4.33	0.41	41	4.38	0.42
가사일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47	1.66	0.32	42	1.72	0.32
	아버지	47	1.99	0.34	41	2.04	0.1
제 1차 시기와 제 2차 시기의 차이							
가사일 분담	어머니	46	0.00	0.50	42	-0.04	0.49
	아버지	45	0.10	0.39	41	0.14	0.68
가사일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46	0.06	0.28	42	0.05	0.32
	아버지	47	0.03	0.32	41	0.04	0.21

N=표본 수, M=평균, s=표준편차

〈표 17〉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가사일 분담에 대한 Mann-Whitney-U-Tests

변 인		N		Mean Rang		z(U)	
		EE	ZE	EE	ZE		
제 1차 시기(임신기)							
가사 분담	어머니	76	54	59.6	73.8	2.115	*
	아버지	74	54	62.6	67.1	0.676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75	54	69.9	58.1	1.804	
	아버지	75	54	60.6	71.0	1.885	
제 2차 시기(출생 후 3개월)							
가사 분담	어머니	46	42	40.9	48.4	1.374	
	아버지	45	41	41.5	45.6	0.760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47	42	42.6	47.6	0.922	*
	아버지	47	41	40.5	49.1	2.053	
제 1차 시기와 제 2차 시기의 차이							
가사 분담	어머니	46	42	46.8	42.0	0.867	
	아버지	45	41	43.8	45.3	0.315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	46	42	46.8	42.0	0.867	
	아버지	47	41	43.8	45.3	0.315	

* = $p < .05$ N=표본 수, EE=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ZE=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대한 임신기와 출산후의 일상가사 수행 차이는 어머니집단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분담에 있어서 아버지집단들간에는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두 시기에 대한 집단내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분담에 있어서 전환기의 영향은 어머니집단 및 아버지집단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집단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사분담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집단들간 및 아버지집단들간의 차이는 임신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생 후에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집단이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들 보다 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각 집단내의 임신기와 출산을 통한 전환기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년간의 사회변동에 따른 젊은 세대 가족의 특성중에 부모가 됨으로서 가지는 부모역할의 변화를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전환기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일상 가사에 대한 분담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보았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상가사의 분담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일로 간주되는 일상가사는 거의 어머니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안수리는 대부분 아버지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시청이나 관청 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 등은 부부가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거나, 아버지들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상일들은 여성적인 일로 간주되고, 또한 실제로 거의 어머니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역할 수행의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자녀의 출산후에 아버지들은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를 임신기 보다 현저하게 많이 처리한다고 보고한 것에 비하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임신기보다는 더 많이 처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둘이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상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금전관리를 제외하고는 임신기와 출산 후에도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보다 분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일상가사를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상가사에 대한 분담과 만족도를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각 부모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임신기 동안에는 둘째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들이 첫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들 보다 일상가사를 더 많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는 자녀의 출산 후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임신기에서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일상가사의 어머니 분담에 차이가 있었지만, 자녀의 출산후에는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일상가사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집단들간에서는 일상가사의 분담에 있어서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후에도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일상가사의 분담에 있어서 아버지들은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수에 따른 역할 수행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일상가사의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임신기에서는 어머니 집단들 및 아버지 집단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산후에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집단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집단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들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집단들 보다 적응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통한 부모로의 전환기의 영향은 가사 분담과 만족도에서 어머니집단들내 및 아버지집단들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부부중심의 2인 관계에서 부모-자녀의 3인관계로 넘

어가는 부모로의 전환기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집단들과 이미 부모전환기를 경험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한국의 부모집단들내에서는 부모전환기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전환기를 중립적 입장에서 본 Rossi(1968)의 견해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상가사중에 집안 수리와 시청이나 관청서류(각종 고지서 등) 처리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가사일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모로의 전환기에서도 여성적인 일로 간주되고 실제로 어머니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후에도 일상가사에 대한 아버지들의 협조는 미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상가사의 수행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좀더 수행하기를 바라는 반면, 아버지들은 현재의 상태에 대부분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핵가족화되어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가족의 경향을 볼 때, 단순한 성적 분업을 강조한 보수적인 역할관은 여성들에게 더욱 가중한 역할부담만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일상가사는 여성적인 일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진보적인 역할 수행이 두사람 중심의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로 들어가는 부모전환기에서는 특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의 표집이 어려워 한국의 임신기 부부를 대표할 수 있는 모수적 표집이 되기에 미비했던 점과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부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여 자녀의 수에 따른 부부의 역할 분담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없었던 것과 부모전환기에서의 부모역할관의 연구(I)에 이어 일상가사에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집시기를 임신기와 자녀의 출산 후 3개월로 제한하였기에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되는 가족의 역할 분담을 추적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가 부모전환기의 가족 역할 및 갈등 연구와 가족 발달적 연구의 기초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가족 연구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으로 가족의 발달 단계를 추적하여 변화되는 가족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고은숙·김명자, 就業婦人의 스트레스원, 内外統制性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1호, 1993, 45-60.
- 2) 김영희, Goldsmith, E.B.,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3호, 1992, 271-284.
- 3) 류시중,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 경북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 17, 1973, 29-40.
- 4) 류시중·박경구, 한국 도시 가족의 가사역할과 세력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양문화, 제 9권, 1982, 89-109.
- 5)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1)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제 11 집, 1980, 77-91.
- 6)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2),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자연가정과학편, 제 13집, 1982, 5-34.
- 7) 이기영·구혜령,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1992, 99-112.
- 8) 이미숙,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성역할태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 서울, 1980.
- 9) 이석진, 핵가족에 있어서의 부부관계 및 역할구조-도시부부를 중심으로, 이대 석사, 서울, 1971.
- 10)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서울, 1982.
- 11)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전주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호, 1983, 131-139.
- 12) 이효재, 서울시 가족의 사회적 고찰,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1집, 1959, 9-12.
- 13) 임정빈·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1986, 71-93.
- 14) 장운옥,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

- 사노동인식이 시간제약 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0권 3호, 1992, 325-345.
- 15) 최신덕, 도시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제 2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2, 1973, 87-120.
- 16) 최재석,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아세아연구원, 14 권 1호, 1971, 15-40.
- 17) 양명숙,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I): 부모 역할관에 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1993, 53-66.
- 18) Blumer, H., Der methodologische Standort des symbolischen Interaktionismus, In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en (Hrsg.), Alltagswissen, Interaktion und gesellschaftliche Wirklichkeit (Bd. 1), Hamburg, 1973.
- 19) Brogan, D. & Kumer, N.,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6, 31-39.
- 20) Gloger-Tippelt, G., "Der Übergang zur Elternschaft eine entwicklungspsychologische Analyse," Zeitschrift fü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ädagogische Psychologie, 17, 1985, 53-92.
- 21) Gloger-Tippelt, G., Schwangerschaft und erste Geburt, Stuttgart: Kohlhammer, 1988.
- 22)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per and Brothers, 1949.
- 23) Le Masters, E.E.,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1957, 352-355.
- 24) Lindesmith, A.R. & Strauss, A.L., Symbolische Bedingungen der Sozialisation (Teil 1), Düsseldorf, Schwann, 1974.
- 25) Linton, R.,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ion-Century-Crofts, 1936.
- 26) Linton, R.,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New York: Appletion Century-Crofts, 1945.
- 27) Michaels, G.Y. & Goldberg, W.A.(Ed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28) Parsons, T. & Bales, R.F., Family, Socio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co: Free Press, 1955.
- 29) Rose, A., Systematische Zusammenfassung der Theorie der symbolischen Interaktion, in H. Hartman (Ed.), Moderne amerikanische Soziologie (2. Aufl.), Stuttgart: Enke, 1973, 219-231.
- 30) Rossi, A.S., "Tran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1968, 26-33.
- 31) Simmel, G.,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2. Aufl.), München: Duncker & Humbolt, 1922.
- 32) Steinert, H., Symbolische Interaktion, Stuttgart: Klett, 1973.
- 33) Stryker, S., Die Theorie des Symbolischen Interaktionismus, In M. Auwärter, E. Kirsch, & K. Schröter(Hrsg.), Seminar Kommunikation, Interaktion, Identität, Frankfurt a. M.: Suhkamp, 1976, 257-274.